

형사처벌 면제 연령 '만 14→13세'

끊이지 않는 청소년 폭력에 메스 김상곤 부총리 관계장관 긴급회의 피해학생 전담기관 1→3곳 확대

정부가 남아 흉포화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안으로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만 18세 미만 소년법에 대한 형사처벌 금지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 정현백 여가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공석인

경찰청장 대신 참석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장은 부처별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청소년 범죄를 엄정히 수사하고 전국 단위 피해 학생 전담 기관을 기존 1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는 등 피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선도교육 및 재범 방지를 위해 기관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제약하고 있는 법률적 한계 등을 분석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완책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사 미성년

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안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한편 명예보호관할관을 기존 800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늘리는 등 재범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이효성 방통통신위원장은 "자극적인 폭력 등 유해 영상물에 대한 심의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범부처가 공동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문화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CYS-Net)로 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청소년 상담 분야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인 '청소년 동반자'를 1146

명에서 1261명으로, 비행·일탈 등 위기 청소년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아웃리치 전문요원'을 3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청소년 폭력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학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전국 50개 청소년 경찰학교를 활용해 체험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할 때 개인상담을 의무화하는 등 가해자 선도 교육에 내실을 기해달라"면서 "범부처와 공동으로 청소년 폭력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8월 사회관계장관 회의에 후속 보완 대책을 안전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

도내 유·초·특수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추진

전라북도교육청이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 내년까지 도내 전체 유·초·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2018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유치원 공기정화장치 렌탈비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유·초·특수학교 전체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렌탈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치원의 경우 공·사립 531개원 1,527학급에 공기정화장치 운영비(렌탈비)를 지원한다. 운영비는 9~12월 분, 낙달치 총 3억5400만원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공기정화장치 1실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초·중·고·특수학교에는 12억 3,000만원(특교 40%, 자체비 60%)을 들여 공기정화장치를 1대씩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이 공기정화장치는 학교 내 보건실 또는 돌봄교실 등에 설치된다.

이번 추경예산은 9월 중 의회 심의를 거쳐 18일께 확정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회문제로 떠오른 고농도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유·초·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것"이라며 "다만 중·고등학교는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2일 동안 전국 고교생 및 교사 1만2,000여 명을 초청해 '2018년 전공체험·학과탐방·입학전형설명회'를 성황리에 열었다.

전북대, 학과 체험 입학설명회 1만 명 '성황'

95개 학과 부스 설치... 입체적 설명 진행 '호평'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진로 선택을 고민하는 고교생들에게 다양한 전공을 체험하도록 돕고,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 및 학과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공체험 및 학과탐방, 입학전형 설명회, 모의면접 등을 다채롭게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전북대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2일 동안 전국 고교생 및 교사 1만2,000여 명을 초청, '2018년 전공체험·학과탐방·입학전형설명회'를 성황리에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대 95개 학과(부), 1개 특별사업단이 참여하고,

전남대, 충남대, 제주대 등 국립대를 비롯한 전북지역 주요 대학들이 참여해 전공체험·학과탐방과 함께 학생부종합전형 등 비롯한 입시상담이 입체적으로 진행돼 참가한 학생과 교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13일 오전 이남호 총장도 행사장에 참여해 대학을 찾은 고교생들과 일일상담을 통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고, '총장과 함께하는 포드존' 부스도 설치·운영돼 학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이날 행사는 찾은 최혜인 학생(전주여고 2년)은 "학과 정보에 대

해 단편적으로만 아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직접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 큰 힘이 될 것 같다"며 "내가 지망하는 학과에 대한 정보까지 다양하게 얻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이남호 총장은 "우리대학은 고교생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입체적인 입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학과탐방, 전공체험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입학설명회를 열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실질적이고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학생들의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원광대 창업지원단, 사업계획서 Skill-UP 창업캠프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창업지원단이 동아리 학생 22개 팀 43명을 대상으로 '창업역량 강화 및 사업계획서 Skill-UP 창업캠프'를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총 10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첫날 사업계획서 분석과 작성법에 대한 강의로 시작된 캠프는 BM 성공 사례 소개 및 도식화 실무 강의, 사업계획서 작성기법 멘토링이 이어졌으며, 2일 차에는 마케팅 관련 강의와 공유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멘토링, 성공적인 사업계획서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백현기 창업지원단장은 "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배경 지식을 배우고, 국내·외 창업 성공사례와 시장 및 고객 검증으로 성공 가능성 높은 아이디어 발굴할 기대한다"며, "사업계획서를 통해 자신들의 사업계획서를 점검·분석하고, 창업 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 설정과 노하우 습득으로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캠프 진행 취지를 밝혔다.

한편, 원광대 창업지원단은 앞서 전북 비즈니스 운영학교 13곳의 고교생 62명을 대상으로 전북권 비즈니스 연합리그 'UNION 창업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을 초청해 학생 취업 등 대학-기업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북대, 대학-기업 상생 발전 간담회 성료

55개 기업 참여... 전북권 기업 초청 이어 두 번째

전대 모험생 우수성 알리고 기업과 네트워킹 구축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을 초청해 학생 취업 등 대학-기업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서울 강남 아모리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월 전북권 기업 초청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것.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KT, OTC 등 55개 국내 굴지의 기업에서 80여 명의 임직원이 함께한 이날 자리에서 전북대는 대학의 경쟁력과 학생들의 우수성을 기업에 적극 알리고, 대학과 기업 간 소통을 통해 상생 협력 방안도 진밀히 논의했다.

특히 '모범생을 넘어 모험생을 키우는 대학'이라는 대학의 인재 브랜드를 적극 알리기 위해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모험활동'의 대표 사례를 학생들이 직접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비교과 모험활동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모험대사를 비롯해 모험역

장 장학생, 캠프튜지인 대상 수상자, 그리고 전북대의 대표 학생경력 관리 프로그램인 '큰사담프로젝트' 블랙벨트 취득 학생들이 사례를 발표하고 우수성을 알려 참여 임직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또한 이남호 총장 및 모교교수, 학생들은 참가자 네트워킹을 통해 같은 테이블에 앉은 기업인들과 청년취업 활성화 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으며, 특히 행사에 참여한 30여명의 학생들은 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취업 지도를 받기도 했다.

이남호 총장은 "우리대학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최근 영국의 더 타임스고등교육이 발표한 '2018 아시아-태평양 대학평가'에서 국립 거점 대학 2위, 국내 16위를 기록하는 등 탄탄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며, 훌륭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며 "우수한 우리대학 인재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